

캔버라 한인성당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톡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봉 헌	영 성 체	파 견
<가톨릭 성가 102번> 어서 가 경배하세	<가톨릭 성가 32번> 언제나 주님과 함께	<가톨릭 성가 25번> 사랑의 하느님	<가톨릭 성가 103번> 오늘 아기 예수

제 1독서 | 이사야서 52,7-10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한 팔을 걷어붙이시니 땅끝들이 모두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화답송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 (좌)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우)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좌)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 (우)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뿜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

제 2독서 | 히브리서 1,1-6

<아드님은 하느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느님 본질의 모상으로서, 만물을 당신의 강력한 말씀으로 지탱하십니다.>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거룩한 날이 우리에게 밝았네. 민족들아, 어서 와 주님을 경배하여라. 오늘 큰 빛이 땅 위에 내린다.

◎ 알렐루야

복음 | 요한 1,1-5, 9-14



오늘의 복음 - 요한 1,1-5.9-14

1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2 그분께서는 한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3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4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5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9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
 10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11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13 이들은 혈통이나 육욕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14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이 타락한 세상에 하느님이 내신 너무나 쉬운 길 - 공지영 마리아

9월 7일 시성된 카를로 아쿠티스에 대해 내 후배가 말했다. "그 사람이 뭘 했다고 시성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나는 그에 대한 몇 권의 책을 주문해 읽었다. 그리고 한 주 내내 그의 생각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이런 일도 드문 일이었다. 후배의 말대로 겨우 이 지상에서 15년 동안 산 소년이 뭘 했길래 수많은 기적이 그를 통해 일어나게 된 것일까. 나는 책을 다시 펼치고 그가 한 일을 목록화해 보았다.

부모의 이혼으로 기가 죽은 친구들 집으로 초대해서 밥 먹기, 왕따당하는 친구에게 말 걸기, 놀이터에서 장난감을 빼앗겨도 화내지 않기, 규칙을 어기는 친구에게는 화내기, 쓰레기 줍기, 버려진 동물 집으로 데려오기, 거리의 청소부에게 인사하며 안부 물어주기, 할머니에게 부탁해 후식까지 챙겨 노숙자에게 나르기, 신발을 한 켤레 더 사주겠다는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며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 달라 부탁하기, 사춘기 시절 예쁜 여학생에게 친구들이 휘파람을 불자 "소피아가 개야? 왜 휘파람을 부니?"라고 화내기. 부유한 학생들이 다니던 학교에서 몇 벌이 없는 그의 옷을 가지고 친구들이 촌스럽다며 놀리자, 그는 정색하고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고유하게 태어나. 명품이 뭐가 좋아? 모두 똑같이 생겼잖아. 남을 모방만 하다가 세상을 떠나면 좋겠니?"

내 머리카락이 쭈뼛해진 것 같았다. 지난번 소개했던 스캇 펙의 「거짓의 사람들」에서 그도 썼던 것이다. "악은 이상하게도 별 특징들이 없이 비슷비슷하다. 무조건 권력자에게 아부하며 그를 따르기 때문인 것 같았다. 그렇다면 선택지는 방법은 참 쉽다. 성자들을 보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독특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저 자기 자

신이 되면 된다." 70세 노학자가 쓴 글과 15세 소년이 한 말은 이렇게 쌍을 이루어 내게 들려왔다. 진리는 세계 어느 곳에서든 비슷하게 선포된다는 말이 떠올랐던 것은 물론이다. 그렇다고 카를로 아쿠티스가 성경을 끼고 다니며, 근엄하게 있었던 소년이었나? 아니, 그는 혼자서 색소폰을 불었고, 컴퓨터왕이었다. 혼자서 성체의 기적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2000년대 초반이었으니 프로그램은 전문가만이 할 수 있었다) 만들어 보급했다. 부모는 그가 죽은 후 그의 컴퓨터를 열어보았는데, 금지된 사이트에는 단 한 번도 접속한 기록이 없었다. 급성 백혈병으로 죽음을 앞둔 그는 어머니에게 말한다.

"슬퍼하지 마세요. 슬픔은 자기 자신을 향한 시선이지만, 행복은 하느님께 시선을 두는 거예요. 저는 늘 하느님 맘에 드는 일을 했으니까 편안히 죽을 거 같아요. 하지만 제가 죽은 뒤에 동생들이 태어날 거예요." 그의 예언대로, 카를로 아쿠티스가 죽은 후 그의 어머니는 43살에 쌍둥이를 낳았다.

기록을 정리하면서 나는 약간 울었다. 이 중에서 내가 하기 어려운 일이 단 하나라도 있을까? 20세기 초반,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소화 데레사가 우리에게 큰 성녀가 되었고, 나는 21세기 밀레니엄의 첫 성인이 된 아쿠티스가 큰 분이라는 것을 직감한다. 부끄러운 내 마음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만 같다.

"산을 옮길 필요도, 병자를 낫게 할 필요도, 거대한 성당을 세울 필요도, 신대륙에 가서 공을 세울 필요도 없다. 걸작을 쓰지 않아도 된다. 그냥 사랑으로 살면 된다. 그것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있더냐?"